



의학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 분석과 학술 의학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밀 검증 리포트입니다.

의학적 신뢰도 점수

45 / 100

신뢰 수준: 보통/판단보류

리포트 정보

리포트 ID	REPORT-69
작성일시	2026-07-04 10:50:39 KST
분석 모델	gemini-2.5-flash

검증 대상 (Source)

소 간을 먹으면 피가 맑아 진다.

종합 의학 소견 (Executive Summary)

소 간 섭취가 피를 맑게 한다는 주장은 현재 의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며, 제시된 연구 자료들은 해당 주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거나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을 맹신하여 특정 건강상의 이점을 기대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항상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부 주장 분석 결과

판단 보류 (Inconclusive)

주장 1: 소 간 섭취가 피를 맑게 한다.

소 간 섭취가 피를 맑게 한다는 주장은 제시된 논문들을 통해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논문 [1]과 [2]는 각각 송아지와 젖소의 혈액 성분 변화를 다룬 동물 연구이며, 이는 인간이 소 간을 섭취했을 때 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동물의 혈액 성분 자체가 아닌, '소 간 섭취'가 인간의 '피를 맑게 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논문 [3]은 '나프록센'이라는 약물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사항으로, 소 간 섭취 또는 피를 맑게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약품 정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근거만으로는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으며, 소 간 섭취가 인간의 혈액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체 대상 연구가 필요합니다.

관련 의학 문헌 및 학술 근거

- 송아지 송아지의 생후 2개월간 혈액화학치 양상에 관한 연구 (조광현, 박용수, 김성국, 도재철, 어경연, 광동미, 권오덕, 2016) [근거 수준: 3]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53467>
- 젖소에 있어서 분만 후 혈액 및 우유의 성분 변화와 성분간의 상관관계 (이종완, 정영채, 김창근, 김명희, 최선호, 2007) [근거 수준: 3]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61471>
- [FDA 라벨] Naproxen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26) [근거 수준: 3]
링크: <https://dailymed.nlm.nih.gov/dailymed/drugInfo.cfm?setid=000155a8-709c-44e5-a75f-cd890f3a7caf>

Translation missing: ko.verifications.pdf.process

해당 주장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45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실시간 의학 데이터베이스(PubMed 등) 검색 결과, '소 간 섭취가 피를 맑게 한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체 대상의 임상 시험이나 체계적 문헌 고찰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공된 근거들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해당 주장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공식 의학 가이드라인의 근거 수준 등급 체계(예: Level of Evidence)에 따르면 매우 낮은 수준의 근거(Level V 또는 VI, 동물 연구 및 전문가 의견)로 평가됩니다. 메타분석 가중치 반영 시에도 이러한 종류의 근거는 실질적인 가중치를 얻기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해당 주장의 의학적 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거 부족' 범주의 낮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